이재명 "체포안 가결파 징계 안한다" 통합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5일만에 복귀 민주 최고위 주재…민생 이슈로 혁신 경쟁 예고
"과제는 국민 삶 개선…무능 내각 사퇴시켜야" 정부 실정 비판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일성으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강력 비판했다. 또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방' 징계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

이날 당무 복귀 첫 일정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는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선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민주당의 '유능한 대안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기 과제를 추진할 주체로 역부족이라며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민생 최우선'으로 급격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자, 민주당도 민생 이슈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내각 총사퇴' 언급에 대해 "강서구청장 보선 후 '민생을 더 살피겠다',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 '반성한다' 등의 정부·여당의 언급이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 가꿔져 나가기를 촉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3자 회동'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강성 지지층과 일부 친명 지도부가 요구해온 '해당(害黨) 행위자'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보선 승리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고 표현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고 직접적인 발언이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부의 분열 요인을 키우기보다는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 대오 강화를 촉구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발언이 윤리심판원 회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윤리심판원은 당헌 당규가 가진 절차적 문제라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그 검토 의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뒤이어 '징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인가'라는 질의에는 "아니다. 하지 않는다. 징계에 대해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무적 검토'란 당원 청원에 대한 답변 등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윤리심판원에 간다는 것은 징계에 착수한다는 것으로, 이 대표 말과 정면 배치된다. 징계하지 않겠다는 대표 발언 그대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당무복귀와 함께 민생과 통합에 방점을 찍고, 국민의힘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과 혁신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소모적 정쟁 대결 구도보다는 민생과 혁신이라는 미래 지향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어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당내 소통과 공감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혁신의 성패는 물론 내년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협치하려면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해야"

민주 최고위…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도 시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그리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 사안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흉상 철거에 앞장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육사생도 교육을 위해 마련된 '독립전쟁 영웅실'이 이미 철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며 민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 또한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처리해 진실 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한다면 단념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예술인패스, 할인율 낮고 지방에선 무용지물"

이개호 의원 "제휴처 확대 등 필요"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국내 예술인들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생활 할인 혜택을 주고자 발급하는 '예술인패스'가 낮은 할인율과 부족한 제휴·사용처 때문에 예술인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공연·전시에선 혜택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총 14만6764명에게 예술인 패스가 발급됐다.

카드 형태의 패스를 통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20%, 국립극장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예술의전당 입장과 인터파크 티켓 구매시에는 아예 할인 혜택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선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예술인 패스 혜택보기 홈페이지' 검색 결과 지난 9월 기준 전남도내 40개 공연·전시회 가운데 단 한 곳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개호 의원은 "할인율 제고와 제휴처 확대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리베이트로 의사 면허취소 5년간 23건"

김원이 의원 복지부 국감 자료

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2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약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중앙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앙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의 명칭**
 • 구수, 국사, 군유, 궁성, 금골, 후야, 헌술, 환혼, 훈장, 한강, 운문, 운악, 월악, 가산, 발산 태양광발전소
2. **발전소의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2438-12 인근(공유수면)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724-3, 724-6, 724-7, 724-9, 724-10, 724-11, 696-1, 693-1, 693-3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99-4, 5
3. **발전소의 면적**
 • 구수(20,681㎡), 국사(18,696㎡), 군유(21,273㎡), 궁성(19,145㎡), 금골(13,191㎡), 후야(25,754㎡), 헌술(19,019㎡), 환혼(20,559㎡), 훈장(19,940㎡), 한강(15,307㎡), 운문(20,594㎡), 운악(20,583㎡), 월악(20,572㎡), 가산(20,658㎡), 발산(6,002㎡) 태양광발전소
4.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용량
 구수(2,998.25kw), 국사(2,998.25kw), 군유(2,998.25kw), 궁성(2,998.25kw), 금골(1,843.17kw), 후야(2,998.25kw), 헌술(2,803.28kw), 환혼(2,961.40kw), 훈장(2,952.69kw), 한강(2,118.54kw), 운문(2,999.59kw), 운악(2,999.59kw), 월악(2,999.59kw), 가산(2,999.59kw), 발산(717.57kw) 태양광발전소
 • 사업개시예정일 : 2026년 12월 30일
 • 사업운영기간 : 2026년 12월 30일 ~ 2046년 12월 30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5.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 가야, 솔섬, 무등, 도원, 달빛, 학산, 아성2차, 자은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6.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0월 24일** ~ 2023년 **10월 31일** (공고일로부터 7일간)
7.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556-1504 FAX) 02-556-1502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전판기(270918-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비아안길 51-6(비아동)

피상속인 망 전판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863호로 신청하여 2023년 10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0월 24일

• **상속인** : 전나례(520905-2XXXXXX)
서울 구로구 부일로1길 136-3, 에이동 101호 (온수동, 두양그린아파트)
• **신고기간** : 2023. 10. 24. ~ 2023. 12.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전나례의 주소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성권(660123-1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남면 서고지길 32
• **등록기준지** :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1107번지

피상속인 망 박성권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느단438호로 신청하여 2023년 10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0월 24일

• **상속인** : 김방자(401218-2XXXXXX)
여수시 남면 서고지길 32
• **신고기간** : 2023. 10. 24. ~ 2023. 12.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방자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2023년 10월 23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삼마전기통신 주식회사(이하"갑")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제이케이전기(이하"을")와 분할합병("갑"의 정보통신공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위께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24일

"갑" **삼마전기통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38, 지하2호 (석촌동, 영흥빌딩)
대표이사 고 인 숙

"을" **주식회사 제이케이전기**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공단길14번길 57
대표이사 전 광 섭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3. 10. 1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원 주식 10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 주권을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4일

주식회사 데이탐우만스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347
대표이사 김 춘 식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컬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